

가족 환경이 교육을 만든다?



최 성 해
동양대 총장

교육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육 기관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필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교육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대체로 한국 교육과 사회의 주된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사회이다. 즉, 자신의 후세를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키우기 싫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바로 인성과 개성을 무시한 교육, 그리고 단위별 교육의 실효성 상실 등이다.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이차적 목적은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교과과정은 대학 입시를 향하여 정렬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에 실패하였을 경우 일부 실업학교의 교과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용한 지식이 되어버린다.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 역시 실제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보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은, 혹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이타적인 학생보다 대학을 진학한, 혹은 좋은 대학에 진학한 이기적인 학생이 더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 때문이다. 인성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학벌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명찰이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개인을 위한 이기심은 사회적 생산을 위해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은 서울대 합격을 위하여 밤을 새고, 서울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고시 합격을 위하여 밤을 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한국은 중진국의 대열에 빠르게 올라섰지만,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학벌 내지 고시 선호 때문에 선진국의 반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학벌 위주의 사회 역시 한국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에 단시간 내에 변화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므로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회나 교육의 변화를
미래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한 나라의 문화는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되어 온 것이기에 문화적 속성을 단번에 부정하거나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학벌 위주의 사회 역시 한국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에 단시간 내에 변화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므로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회나 교육의 변화를 미래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는 관직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한 가문이 보호를 받거나 이름을 높이려면 우선 자손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로 변모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을 최대의 명예로 보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을 선호하는 것 역시 한국인들에게 잠재된 집단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의사가 가문에서 배출되어야만 가문 전체가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는 집단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고의 배후에는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환의식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언제 가문에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문에서 배출한 판사나 의사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준비된 보호 인력인 것이다.

한국의 수험생 혹은 학부모의 법대나 의대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으며, 같은 맥락 속에서 '입시 위주'나 '학벌 위주'라는 교육/사회적 현상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현상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화적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나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 제도의 도입은 이런 점에서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무런 사회적 보완 장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다시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교육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렵게 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길을 좁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에서는 의대의 신설이나 사법고시 합격생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표방하는 표면적 이유는 질의 저하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 반대하는 내면적인 이유는 소득의 감소이다. 그러나 과감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용 인원을 늘리고 그 회소성을 줄인다면 한국의 교육은 분명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한글**